| 산업통상자원부<br>http://www.motie.go.kr | **보 도 자 료** |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<br>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|
|---|---|---|

**2017년 12월 8일(금) 조간부터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2. 7.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| 배포일시 | 2017. 12. 7(목) | 담당부서 | 투자정책과 |
|---|---|---|---|
| 담당과장 | 김용채 과장(044-203-4070) | 담 당 자 | 김상우 사무관(044-203-4071) |

# 산업부 백운규장관, 2018년 외국인투자 확대 당부

## - 외투기업 송년만찬 간담회 개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백운규)는 **12.7.(목) 18:00** 서울 신라호텔에서 외국인투자기업, 주한 외국상의 회장단이 참여하는 **송년만찬 간담회를 개최했**다.

○ 이번 만찬은 2017년 한해 **국내 투자확대, 일자리 창출**에 기여한 **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감사**를 표시하고, **2018년에도 지속적인 활발한 투자를 당부**하기 위해 마련했다.

◆ 2017 외투기업 송년만찬 간담회 계획
- ㅇ (일시) 2017. 12. 7(목) 18:00 ~ 20:00
- ㅇ (장소) 신라호텔 영빈관 에메랄드홀
- ㅇ (참석대상) 산업부 장관, 주한외국상의 회장단, 외국인투자기업 대표 등 60여명

□ 백장관은 만찬사를 통해 "올해 외국인투자는 **3년 연속 200억 달러를 돌파**했는데, 이는 **지정학적 위험, 신보호무역주의 확산** 등 대내외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**더욱 뜻깊은 성과**"임을 설명하면서,

○ "국제신용평가기관의 **한국 신용등급 상향조정, 수출과 설비투자의 증가세, 주식시장의 상승장**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."라고 강조했다.

○ "11월말 유럽출장에서 만난 유럽연합(EU) 투자가들도 한국에 대해 **미래에도 투자협력 확대**가 필요한 **동반자**라고 인식하고 있다."

라고 설명하면서, “새로운 투자기회가 살아 숨 쉬는 **혁신적 산업여건,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유리한 투자환경, 넓은 자유무역협정(FTA) 거점**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은 아직도 **투자처로써의 다양한 매력**이 있으므로, 앞으로도 **더 많은 투자를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.**” 라고 말했다.

□ 이번 송년만찬에서는 3개 기업·기관이 **한국투자의 성과, 산학협력사례** 등을 **만찬에 참석한 외투기업, 주한상의와 공유**하는 자리도 마련했다.

**❶ 도레이:** 한국에서의 투자스토리

○ 이영관 도레이 첨단소재 회장은 “우수한 **글로벌 한국기업과의 비즈니스** 기회, 뛰어난 인재 등 **이상적인 기업환경, 한국정부의 강력한 지원, 광대한 자유무역협정(FTA) 네트워크**를 통한 아시아 시장 진출 등이 **한국 진출 이유**임”을 강조하며, **“20년까지 1조원 투자, 연매출은 5조까지 확대**하겠다.”라는 포부를 밝혔다.

**❷ 주한독일상의:** 아우스빌둥(Ausbildung) 일-학습 병행 프로그램

○ 바바라 출만 주한독일상의 대표는 “독일은 다른 유럽연합(EU)**회원국보다 낮은 청년실업률**을 기록하였는데, 독일만의 일·학습 병행 프로그램인 **아우스빌둥이 그 원동력**임”을 강조하면서, “금년은 **자동차 정비부분을 먼저 한국에 도입**하기로 했다.” 라고 설명하였다.

○ “아우스빌둥은 **현장교육과 이론교육이 70:30으로** 진행되며, **한국에 도입, 확산**될 경우 청년들에게 **안정적인 일자리**를 제공하고, **미스매치 현상을 완화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고 밝혔다.

**❸ 램리서치 (미국):** 혁신적 기술, 신속한 해결

○ 서인학 램리서치 대표이사는 “2003년 램리서치 코리아에 합류한 이후 **매출규모가 40배 이상 증가**했고, 2011년 국내에 제조시설을 설립한 이후에는 **생산규모가 10배 이상 확대**되었다. 또한, 고용창출 확대와 협력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.”면서 그간 **한국에서의 성장과정을 설명**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김상우 사무관(☎ 044-203-407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